

## Metafora(메타포라)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을 주유하는 순례자처럼 작은 놀람과 기쁨들이 살며시 스쳐 지나간다. 작은 길 모퉁이에서 만나는 우리가 인식한 형상들, 뒤를 돌면 만나는 반가운 형태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 숨어있다.

그 모든 형상들은 작품에 스며들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은 예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친숙하고 자연스러우며 우리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한다.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늘 보아왔던 작품의 재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오브제와 궁금증을 자아내는 형상의 재구성, 화려한 색채의 회회적인 느낌이 조합된 다양한 조형성에 그 본질이 있다. 또한 고도의 테크닉과 성실성이 작품 면면에 묻어난다. 대표적으로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닭(새)과 두상 등 인체의 요소들은 형태와 조형적 접근, 깊은 은유적 표현으로 인하여 빼어난 조각 작품처럼 우리를 압도한다. 대표적으로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닭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태리 미래주의의 표현처럼 기계적 역동성과 힘찬 전진은 현대의 나약한 현실을 박차고 나오는 삶에 대한 강렬한 힘을 의미하고, 은유적 시선을 내포한 닭의 눈빛과 시선은 고대의 조각상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몸에 채색되어진 화려하고 다양한 색들과 코발트색, 연속적인 기호, 추상적 표현들은 인지되어진 닭의 단순한 모습을 벗어나 바라보는 우리들을 마치 신화와 감추어진 신비로 가득한 고대 근동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김정범 작가의 작품은 감상자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은유적 표현들은 화려하지만 고졸한 느낌의 조형성과 다양한 예술적 사조들을 아우르는 집약된 걸출한 표현방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하고 여러 해석들을 자아내는 그의 작품들은 거장 Giorgio de Chirico의 말처럼 “작품이 영원성을 갖기 위해 인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논리나 상식은 이것에 반 한다”는 말과 같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어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상상하는 것이 감상에 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각가 박경환

2024. 10